



옷장 미스터리

사는 동안 풀리지 않는 3대 미스터리가 있다고 한다. 첫째, 냉장고는 꼭 찻는데 먹을 게 없다. 둘째, 월급은 들어왔는데 쓸 돈은 없다. 그리고 셋째, 옷장은 터져 나가는데 입을 옷은 없다. 누가 그러냐고? 사실은 방금 내가 지어냈다. 그러나 분명 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실제로 늘 친구들과도 이런 이야기를 하며 한숨도 쉬고 웃기도 한다. 세 가지 모두 솔직히 대충 그 이유를 알고도 있지만 그래도 쉽게 해결할 순 없기에 미스터리로 남겨두는 편이 정신건강에 이로울지도 모르겠다.

오늘은 미스터리 중 세 번째, 옷장 미스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한다. 그 이유인즉슨 당최 요즘 옷장에서 옷을 찾아 입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작년 봄에는 무슨 옷을 입었는지? 매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입을 옷이 없다. 옷장은 딱 차서 옷을 도로 집어넣으려고 하면 애를 먹는데 정작 외출할 때 입을 옷을 찾으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온다. 상의를 고르면 같이 입을 하의를 못 찾겠고, 상하의가 준비되면 마땅한 겹옷이 없고, 겨우겨우 찾아 입고 현관으로 나가면 어울리는 신발이 없다. 늘 이런 식이다.

새로운 계절마다 옷을 산 것 같은데도 입을 옷이 없다는 것은 당황스럽기만 하고 다시 옷을 좀 사야 하나 싶어서 온라인 사이트도 들락날락해본다. 심지어 종종 옷을 구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장바구니에 이미 옷이 여러 벌 들어가 있는데 꼭 찬 옷장을 생각하면 쉽게 주문 버튼을 누를 수가 없다. 아..... 그렇다면 대체 작년 이맘때는 무슨 옷을 입고 다녔단 말인가?

계절은 쉽게 모습을 바꾸지 않는다. 한낮에는 20도가까이 기온이 올라가지만 아직도 이른 아침에는 2도까지 확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내키는 대로 봄옷을 꺼내 입을 수가 없다. 햇살은 따사로운데 여전히 차가운 공기와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니 가볍게 입고 나갔다가는 몸을 잔뜩 움츠리며 나의 판단을 후회하게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옷이나 신발을 고르는 게 더디고 무척 신중해진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서 옷뿐만 아니라 모자, 신발, 가방, 양말마저도 계절마다 달라지는데 나는 아직도 이게 잘 적응이 안 된다. 먹고사는 것도 바쁜데 복장마저도 철따라 정리하고 준비해야 하는 데다가 나는 세 명의 아이들 것까지 챙겨야 하니 이 모든 게 참 쉽지 않다.

오늘도 외출할 일이 있어서 옷을 고르는데 옷장과 서랍을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는지 모르겠다. 입을 옷 하나 없네. 왜 아직도 살을 못 뺐지? 작년에는 이하의와 무슨 상의를 입었지? 이거 입기엔 아직 좀 춥지 않으려나? 한탄, 후회, 혼돈, 망설임이 뒤섞여 답답했는데 가장 짜증스러웠던 것은 옷장이 너무 꽉 차 있다는 사실이었다. 몇 해의 계절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내 몸에 걸쳐본 적 없는 옷들이 옷장에 갇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다. 다가를 계절에 한 번쯤은 입게 되겠지 싶어서 도로 집어넣고, 버리기는 아깝고 입기에는 뭔가 내키지 않아 고이고이 간직만 하고 있는 옷들을 보니 이것은 욕심인가 미련한인가.....

왜 매년 옷장 다이어트에 실패하는가? 옷 정리할 때마다 꽤 버렸다고 생각하는데도 왜 옷장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가? 입을 옷도 없는데 옷장이라도 비어야 새 옷을 살 것 아닌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면서 기껏 생각했던 것이 옷장 미스터리였다.

아주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나는 무사히 옷을 골라 입고 외출을 했다. 후드 셔츠, 롱 스커트에 양말을 신으니 그럭저럭 요즘 날씨에 적합한 듯했다. 후드 셔츠는 내일 다시 청바지랑 같이 입으려고 의자 위에 걸쳐 뒀다. 옷장을 열면 입을 옷이 마땅치 않아 생각이 복잡해지지만 이렇게 최선을 다해 옷장을 뒤지다 보면 미스터리가 조금은 풀리거나 익숙해지거나 하겠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 미스터리애 어리둥절하지만 조만간 대대적인 옷 정리를 실시하면 또 숨겨진 보물처럼 좋아하던 옷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는다.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과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 아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 1.5세 아줌마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정상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비가 하면 틀림없습니다.



라미라다 새집 2022년생 824천

방 3 화 3.5개 1775 sq ft 타운홈
교통 편리 쾌적한 아늑한 동네 위치
바이올라 대학 근처
투자 매물로도 너무 좋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라미라다 타운홈 43만불

933sqft 렌트하지 마시고 내집 장만하세요
방2 화2개 집전세 마루, 높은 천장, 렌탈
매물로도 아주 좋은 위치, 부에나팍 한인 상권
가까운 거리, 수영장 공원 부담없는 관리.



실비치 타운홈 26만불

시니어 분들만의 도시 공간 레저 월드
방2 화 1
1150sqft 대지 1250sqft



애나하임 새집 분양 628천불

방 4개 화 3.5 1797 sqft
2car 거라지 2022 년생 타운홈
아주 편리한 위치, 안전한 동네, 렌트 인컴도
좋은 새집 좋은 기회를 잡으세요!!



라하브라 싱글홈 72만불

아직 마켓에 안나온 4/4부터 가능한 매물
단층집 방 3개 화 1.5개 1536 sqft
넓고 환한 집안, 포텐셜 무궁무진한 별도의 수입으로
ADU 별채 지을수 있는 대지 아주 넓은집 9408 SOFT



위티어 타운홈 48만불

처음 집 장만할수 있는 좋은 기회!!!
방두개 화 2(full) 1963년생 2car garage 게스트
파킹 넉넉한 단지!!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
이제 렌트 비용으로 집 장만 하세요~ 투자로도
렌트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전화 주세요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일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부사장
Vice President
전 미국대학입시 코디네이터
칼리지 카운셀러
DRE Lic. 02086695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Residential * Commercial * Investments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Get it done right with Leah Ivy Chang”

714.904.1202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